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2015년 신년주일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후 1:30 청파성서학당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강원용 목사와 옥한흠 목사의 대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015년 약정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약정헌금을 드릴 때 교회에서 봉사하길 희망하는 분야를 적어서 내주세요. (찬양대, 교사, 부서활동 등)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1월 폐제찬양과 기도모임이 열립니다.

수요일 저녁 성경공부가 1월 14일(수) 저녁 7:30부터 시작됩니다. 10주간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공부합니다. (강사 : 김재홍 목사)

중구용산지방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5일부터 8일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한 해의 재정을 결산하고 새해의 예산을 세우는 구역회가 18일 주일 오후 1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회중은 축도 후 송영이 끝난 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렘 31:7-14 / 시 147:12-20
엡 1:3-14 / 요 1:10-18

행 19:1-10

오늘 식당 봉사 : 이형숙 광혜자 박경원 이명희 강영님 이국노 박호규
다음 주 식당봉사 : 안홍숙 남인자 이증자 이수정 노성희 홍순구 최재욱
오늘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쫓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일 년의 삶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 길을 잃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세상과 자신에게 실망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겨울을 그 누구보다 춥게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족을 잃고 우는 이들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일터와 삶의 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울부짖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인식	김정숙	고숙이	권미정	김근종	정옥영	김금순
김범진	김미현	김애경	김영아	김인걸	문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정주
김정미	김정진	김혜정	김중수	이순정	김현동	김흥기	문홍일	민지희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옥식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방민정
배재경	이수정	백성례	성지현	송형운	하미림	신영희	신진식	변계선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미숙	오상희	왕수명	윤성종	김윤정	이계선
이소순	이광석	이경희	이국노	김민화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상준	이성범	권현숙	이용현	이자영	이주경	이지훈	이진영
한양미	이한림	김명희	이현순	임주빈	최현옥	장영숙	장원호	박성호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연희	정한구	왕영순	정현숙	조관행	홍선희
조항범	오현정	주경진	이윤정	최종원	한상균	한완식	임정자	홍복선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강미선	권미정	권채영	김극	김대규	박경애	김성진	강은정	김정진
김혜정	김중수	이순정	김진중	김태정	김희진	박홍재	서정순	신영희
신이현	신진식	변혜정	안길상	이형숙	우순덕	은종인	이수자	임승동
백혜숙	임호성	정연희	허성호	진은혜	허호범	박성실	황경순	무명20

생일감사헌금 김인석 이선화 김희우

녹색 꿈 헌금 김용진 박효선 김효정 송희원 송채원 무명1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침	침
	김경혜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이오복		

< 2015년 청파교회의 집회 변화 >

■ 청파성서학당

매 주일 오후 1:30부터 2:20까지 교육관에서 성서학당이 열립니다.
(강의 : 김기석 목사 / 예레미야애가 강의)

■ 동호회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30부터 동호회별로 모입니다.

■ 선교회

매월 셋째 주일 오후 2:30부터 선교회별로 모입니다.

■ 수요 집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떼제 찬양과 기도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 수요 저녁 성서연구

매월 첫째 주를 제외한 수요일 저녁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강의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 1년 40주에 걸쳐 성경 66권 강의)

■ 토요 성경통독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세미나실에서 한 시간씩 성경을 통독합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마음속에 순례길을 품고 사십시오. 눈물의 골짜기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내며 걸어가십시오. 하루하루 그 믿음으로 걷고 걸으면 종국에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세파에 시달리며 사느라 순례자의 본분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부잡스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겠습니다. 가벼운 행장으로 순례길에 오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힘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청파성서학당 <강원용 목사와 옥한흠 목사 대담>	수요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떼제 찬양과 기도 모임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박재란 선생 권혁순 권사

1	영접위원	하현철 임주빈 권순 최현옥 고숙이 김순자
	헌금위원	박홍재 정영선

나이 들에 대하여

나이 생각 안 하며 철없이 살던 저에게도 ‘나이는 못 속여’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행 중 우연히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비행기 좌석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피부, 반짝거리는 흑진주빛의 머리카락, 돌고래같이 탄탄한 몸…….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신선한 기운에 그냥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투명인간인 양 저를 지나쳐서 창가에 앉은 그녀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대상에 끌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나 예외 없이 그 ‘무시’가 계속되는지, 지난 30여 년간 여성으로서 당당하고 자기답게 사는 법을 찾아 연구하고 책을 쓰고 강연해 온 저조차도 존재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큰 ‘권력’인지 온몸으로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남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값’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 나의 자존감이 남의 시선에 좌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니다. 나이 들의 순리를 받아들인 지금이라면 그 상황을 ‘재미있다’고 느꼈을 텐데, 그때는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그러한 경험이 당혹스러웠습니다. ...

미국에서는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Well-Aging)’이나 노후의 보람 있는 삶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잘 늙는 법, 잘 죽는 법을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내용 중에 제 마음에 가장 호소력 있게 다가왔던 몇 가지 나이 들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멋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으면 나이 들수록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열어 놓고 모르는 세계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늙은이가 무슨……’ 하는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의 일상에서 호기심과 창조력을

유발시키는 일을 만들어 가다 보면 나이에 매이지 않고 죽는 날까지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잘 보이려고 쓰고 다녔던 역할극의 가면을 벗고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에 순응하며 살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림자나 참나를 숨기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그런 가면을 내려놓고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제 ‘척하고’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늙어 갈수록 자신의 몸과 성(性)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평화롭고 생기에 가득 찬 음식을 먹고 자신의 몸과 성을 좋은 친구처럼 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폭력적으로 사육돼 죽임을 당한 육류를 피하고 자연스럽게 잘 자란 유기농 채소를 싱싱할 때 먹으라고 합니다...

넷째, 인간관계에서 막히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고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에 맺힌 한과 미움, 분노가 너무 크면 인생의 황혼을 가볍게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자신이 일생 동안 뿌렸던 씨를 잘 거두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소유한 것이 남들에게 흘러가야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창조적 에너지가 죽지 않습니다.

여섯째, 자기 진실의 뼈만 남기고 모든 걸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남에 대한 기대나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버리고, 참견하지 말고 다 그대로 두라는 거지요. ...

일곱째, 이제는 만족의 미덕을 체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가진 것, 된 것에 만족하여 평화를 얻으라고 합니다.

여덟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 훌륭한 지혜들입니다. 그런데 이중 몇 개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멋있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선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멋진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비법이 있으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